

보도	2024.7.17.(수) 조간	배포	2024.7.16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원센터) 은행업무팀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전혜영	(02-3145-7915)

은행중소금융부원장(이준수), 동아시아·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(EMEAP GHOS) 참석

1. 개 요

-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'24.7.15.(월)~7.16.(화)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·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(EMEAP GHOS*)에 참석

* EMEAP(Executives' Meeting of East Asia-Pacific) : 동아시아·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'91년 설립

GHOS: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

-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·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하였으며,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여,

- ①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·규제, ②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

제13차 EMEAP GHOS회의 개요

- ☑ 일 시: '24.7.16.(화) 09:00~12:20
- ☑ 장 소: 말레이시아 페낭
- ☑ 주 관: 말레이시아 중앙은행(Bank Negara Malaysia)
- ☑ 참석기관: (금융감독기관[5개]) 한국 금융감독원,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(NFRA), 일본 금융청(FSA), 호주 건전성감독청(APRA),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JK)
(중앙은행[11개]) 한국 한국은행, 호주 중앙은행(RBA), 중국 인민은행(PBOC), 홍콩 금융관리국(HKMA), 인도네시아 중앙은행(BI), 일본 중앙은행(BOJ), 말레이시아 중앙은행(BNM), 필리핀 중앙은행(BSP), 싱가포르 통화감독청(MAS), 태국 중앙은행(BOT), 뉴질랜드 중앙은행(RBNZ)

2. 주요 논의내용

① **(디지털혁신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)**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금융감독 체계에 중대한 도전과제로 작용

- 최근 아태지역 주요시장에서 40개 이상의 디지털 은행이 출현하여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, 사이버 보안·디지털 금융사기 등 새로운 감독이슈 또한 제기
- 특히, 인공지능(AI)은 대출 프로세스 개선·신속화, 금융사기 탐지 고도화 등 금융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녔으나 오용에 따른 차별, 불투명성 등 잠재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⇒ 이준수 부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은행 등 디지털혁신 현황 및 규제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성, 포용성, 건전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을 소개함

-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은행산업내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취약층으로 금융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,
- 향후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혁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
 - 또한,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증가 유지, 사이버리스크·디지털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디지털 운영복원력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

② **(새로운 국제규제 도입 영향)** 코로나 종료 이후 고금리 장기화 등 금융시스템내 위협요인 관리와 더불어, 새로운 국제규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감독과제로 부상

⇒ 바젤Ⅲ·자체정상화정리계획제도(RRP)·기후리스크관리기준 등 도입에 따른 규제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국의 노력을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

3. 호주 건전성감독청(APRA*) 의장 면담

*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

- 아울러 이준수 부원장은 회의기간중 참석한 금융감독기관장들과 주요 감독현안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는 한편, 존 론스데일 (John Lonsdale) APRA 의장과는 별도의 1:1 면담을 실시
- 역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조직문화 감독, 스트레스 테스트시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등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, 양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